

대주단 “건설사 경영 간섭 안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대주단 협의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는 23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건설사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건설사 대상 대주단 설명회에서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 자금난을 해결해주면 정상화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등급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은행聯, 일부 우려 해명 ... 가입 독려 나서
신규대출 때만 자금 사용처 확인
2010년 2월까지 가입 시기 연장
투기등급도 채권 은행 지원 가능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과 달리 마감 시간이 없고 대주단 운영이 끝나기 전인 2010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금은 관할지만 몇달 후에 어려워진다면 그때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주단에 신청하면 채권 만

기가 일괄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경영권 간섭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대주단 협약에는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자산매각 등

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워크아웃은 금리 인하, 출자 전환 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금계획,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등을 요구하지만 대주단은 혜택이 상환유에 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금관리단 파견 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다만 주택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금용처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또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주단에 가입한 업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분양 매입·대주단 가입 건설사 자금난 해소 역부족 정부 직접 유동성 지원 나서야

建産研 연구위원 주장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보유토지 매입, 대주단 가입 등은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역부족인 만큼 정부가 직접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건설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으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8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천억원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 하락, 고공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내수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부실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가계의 부채 부담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들어 10월 현재 부도된 건설사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 부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인수 위험 등이 증가하며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토지 매입 프로그램은 건설사가 단기간에 유동성 확보하는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주는 등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선업도 구조조정 중소형업체선 반발

업계 “자금난 문제 ... 시설 확장 아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건설사와 저축은행에 이어 조선업종으로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자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종에서는 작년까지의 호황기에 중소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의 침체 탓에 상당수가 어려움을 빠져 있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들은 중소 조선사들에 대규모 시설 자금을 공급했고,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행하는 한편 조선사들의 환해지를 받아준 만큼 이들 업체가 부도나면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에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조선업종에서도 살릴 기업은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업황 전망이 부정적이고 중소형 조선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쟁력있는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중견 이상의 조선업체는 수주 실적이나 현금흐름 등을 볼 때 시급히 구조조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금융권의 구조조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 및 RG 거부로 인한 것인데 무리한 시설 확장 및 수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가.

/연합뉴스

지역 휘발유값 1400원대로

1년 7개월만에 ... 경유는 1300원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1년7개월 만에 1400원대로 내렸고 경유 가격도 1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했다.

18일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광주·전남지역 주유소가 신고한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은 1400.35원, 경유는 1300.2원이었다. 그러나 광주지역 5개 자치구 휘발유 가격은 1475원인 반면 전남은 1350.7원으로 대조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만이 13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평균가격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둘째 주의 1400.93원 이후 처음이다.

18일 기준 경유 판매가격 평균도 1300.2원으로 지난해 11월 첫째 주(1374.64원) 이후 처음으로 1300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휘발유와 경유 국제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추곡수매 현장 찾아

이덕수(왼쪽에서 네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이 18일 담양군 봉산농협 추곡 수매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기아 '쏘울 디바' 中 시장 공략

기아자동차는 18일 중국 광저우(廣州) 국제회의 전람센터에서 열린 '2008 광저우 국제기차전람회'에 콘셉트카 '쏘울 디바(SOUL Diva)'를 공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와함께 기아차는 중국형 스포티지 블랙 인테리야 모델인 '스포티지 현혹판(炫黑版·xuan hei ban)'을 선보였다.

(기아차 제공)

車값 '파격세일'

경기침체 내수판매 부진 극복나서

현대기아차 재고 차량 추가 할인도

금융 경색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 들어 차량 가격을 대폭 내리고 판매 증진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기아차도 ▲프라이드 기본 30만원 할인 ▲로체 이노베이션 기본 107만원 할인, ▲오피러스 기본 200만원 ▲모하비 기본 100만원 ▲카렌스 기본 70만원 할인을 재고차의 경우 각각 차량가의 5%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현대차는 ▲아반떼 기본 30만원, 재고차 30만~80만원 추가 할인 ▲쏘나타 기본 80만원, 재고차 50만~150만원 추가 할인 ▲그랜저 기본 120만원, 재고차 30만~150만원 추가 할인

▲제네시스 기본 200만원, 재고차 100만~200만원 추가 할인 ▲에쿠스 기본 차량가 5%, 재고차 100만~500만원 추가 할인 ▲베라쿠루즈 기본 200만원, 재고차 100만~350만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도 ▲프라이드 기본 30만원 할인 ▲로체 이노베이션 기본 107만원 할인, ▲오피러스 기본 200만원 ▲모하비 기본 100만원 ▲카렌스 기본 70만원 할인을 재고차의 경우 각각 차량가의 5%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쌍용차는 SUV 차종 판촉을 위해 주요 SUV 구매자에 대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2009년형 슈퍼 렉스턴, 리얼 SUV 카이던 및 티 Style 액티언 스포츠 구매 고객은 이달말까지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를 100% 지원받거나 전액 저리 할부(3.9% 36개월 또는 7.9% 48개월)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르노삼성 SM7과 SM5, SM3 현금 구매 및 정산 할부 고객에게 유류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상장사 '어닝 쇼크'

세계경기 침체 ... 3분기 순익 60% 급감

12월 결산법인 570곳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기업의 실적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장기업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어닝 쇼크(Earnings Shock)'를 기록했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70곳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27조 7천97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53%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4조1천240억원으로 9.72% 줄었으며, 순이익은 6조770억원으로 무려 59.24% 급감했다.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던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실적 악화는 더욱 두드러져 매출이 3.5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8.42%, 60.36% 급감했다.

올해 1~3분기 누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9조6천 441억원, 51조6천18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3%, 15.23% 늘어났다. 반면 순이익은 34조8천724억원으로 19.57% 감소했다. /연합뉴스

푼고추·깻잎 日 수출 활기

안전성 갖춘 국내 업체 인정 받아

일본의 푼고추·깻잎 안전성 검사 기준이 완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신선채소류 수출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의 푼고추와 깻잎에 대해 전수 검사가 아닌 5%(건수 기준) 샘플 조사를 통해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따지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전수 검사를 피하려면 업체가 사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고유번호(ID)를 받아야한다. 현재 이같은 '일본 채소류 수출 ID 제도'에 등록된 품목별 생산업체는 ▲파프리카 23개 ▲방울토마토 23개 ▲오이 19개 ▲푼고추 2개 ▲깻잎 2개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푼고추와 깻잎은 지난해 일본으로 각각 31억3천900만달러, 1억2천6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연합뉴스

코스피 6일째 하락

美·日 악재 42P 내려 ... 환율 1448원

미국 증시 급락에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에 겹치면서 18일 코스피지수가 6일째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의 급락과 일본의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소식에 하락 출발한 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도로 낙폭을 키워 전날보다 42.16포인트(3.91%) 내린 1,036.16으로 마감,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의 11거래일 연속 매도공세로 9,720포인트(3.09%) 내린 305.26을 기록, 이를 연속 떨어졌다.

주가 급락의 여파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39.00원 급등한 1,44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6거래일간 121.70원 폭등하면서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달 28일의 1,467.8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Dioutdoor	뉴시 매장 판매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10-4609-1001
미래에셋생명-본사	전국(저축&재테크)전문상담 보정150만.평균450만원	고졸/경력무관	4000~5000	11/21	02-3425-0477
호남pc프리카	ILG텔레콤직원 및 매장관리 점정급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1	062-444-2233
㈜행남자기광주총판	(주)행남자기광주총판 납품사원 및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1	062-527-2627
아델리인웨딩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62-224-0703
㈜그린에스아이	멜피이 개발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23	062-675-7118
한결동물병원	일반직원 및 애견 간호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24	062-652-8275
Z.D	CAD/CAM, 기계조작(반자동화)기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5	062-720-7881
제일유비에스(주)	사무, 관리업무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25	062-603-4603
㈜비엔비	생명공학 관련 연구분석장비 영업(광주)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42-488-0058
한도에너지(주)	경리사무직원 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26	010-6624-1532
현대에프에스	자재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6	062-959-5114
에스이인산업(주)	건축기계설비, 소방기계설비 업무 경력직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27	062-371-318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